

예술적 상상력으로 수놓은 '환경보존 메시지 구현의 장'

광주시립미술관 기획전시 'ECHO: 상상력과 자연을 잇다'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가 자연의 가치를 조명하고 환경보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어린이갤러리에서 기획전시 'ECHO: 상상력과 자연을 잇다'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전시는 자연과 생태적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다.

23일 찾은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현장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자리한 모습이었다.

전시 제목에 포함된 'ECHO(에코)'는 '울림', '메아리'라는 뜻으로 이를 모티브로 한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등 12점의 작품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참여작가 7인(거니립, 김안나, 김자영, 무라타 치아키, 박유진, 한진희, 허달재)은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작품을 구성해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자 했다.

거니립 작가의 작품 '껍질'은 인간의 기

어린이갤러리서 4월27일까지 회화·조각·설치·미디어 등 12점 다채로운 전시 연계프로그램 "자연의 중요성 되새기는 계기"

준에 의해 쓸모를 다한 가로수의 껍질만 남겨진 모습을 통해 생활의 편리 이면에 숨겨진 자연의 소중함을 내포하고 있다. 미디어아티스트 김안나 작가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 OPIM'은 가상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작품으로, 미래의 자연과 도시를 재구성해 독특한 풍경을 경험케 한다. 김자영 작가의 '엇갈린 시선'을 포함한 스투키 연작은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스투키라는 식물을 주제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 자연 본연의 모습에 대한 가치를 전달해 눈길을 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한진희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어느 식탁에 앉으시겠습니까?'를 통해 논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씨지 않는 비닐과 친환경 소재인 종이를 대조했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 농촌의 미



황지희 광주시립미술관 시민도슨트 단장이 친환경 소재를 비롯한 리사이클 및 업사이클 과정을 보여주는 협력전시 작품 '에코 소재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승우 수습기자

래와 우리의 식탁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 디자이너 무라타 치아키가 선보인 '희망의 촛불'은 자연을 지키길 희망하며 촛불을 켜는 행위를 표현한 작품이다. 박유진 작가와 ㈜에쓰시크리에이티브의 협업 작품인 '새들이 함께 노래하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확장현실 기술을 융합한 작품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감성이 어우

러졌다. 특히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새들이 움직이는 인터랙티브 요소가 가미돼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화가 허달재 화백의 '매화도'도 전시장 한곳에 자리한다. 자개, 옷질, 나무와 같은 천연재료를 사용해 더욱 특별함을 더했다. ㈜모리리파이버코리아, 스테리, ㈜세이브어스 등의 기업들이

참여한 '에코 소재랩'은 친환경 소재를 비롯한 리사이클 및 업사이클 과정을 보여 주며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자연 순환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전시 연계프로그램 '알록달록, 꽃과 새싹을 만들어요'와 '자연의 재료로 매화도 만들기'를 전시가 열리는 기간인 오는 4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 11시, 오후 1시에 각각 진행한다. '알록달록, 꽃과 새싹을 만들어요'는 김자영 작가의 그림 책과 함께하는 체험수업으로 작가의 그림 책 '잘려진 싹'을 읽고 나만의 꽃과 새싹을 만들어 벽에 꾸미는 활동이다.

각 프로그램은 어린이갤러리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참여신청은 현장접수로 이뤄지며 수업 당일 선착순 5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지희 광주시립미술관 시민도슨트 단장은 "어린이갤러리의 특성에 맞게 어린이 관람객들이 직접 만지고 그리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마련됐다"며 "이번 전시가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준·정승우 수습기자



지난 2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에서 열린 '오월문예연구소 워크숍'에서 발제자와 참여자가 토론하고 있다. 오월문예연구소 제공

'오월 문학' 역사적 가치·세계화 가능성 논하다

'오월문예연구소 워크숍' 성료 장르 특성·대중화 방안 등 논의

'오월문학'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오월문예연구소 워크숍'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3일 오월문예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세계문학의 가능성으로서 오월문학'을 주제로 △5·18 문학의 역사적 가치 △세계화 가능성 △장르적 특성 △대중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시인과 문학평론가들이 참여해 각자의 시각에서 5·18 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었다.

이승철 시인은 5·18 시 문학의 대중화 방안을 제시해 5·18 이후 시 창작 활동이 본격화한 배경을 설명했고, 당시 검열과 탄압 속에서도 문학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김형중 평론가는 5·18을 다룬 역사소설이 세계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탐색하며, 루카치의 역사소설론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역사소설과 비교했다. 트라우마와 기억 문학이 5·18 문학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 과정에서 국가폭력과 개인의 상처를 다룬 작

품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구 평론가는 2012년 출간된 5월 문학 총서를 언급하며 5·18 문학이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응답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5·18 문학이 기존 형식의 반복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형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월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장소와 공동체, 주체로서의 '절대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영삼 평론가는 공선운, 손병현, 한정현의 소설을 소개하며 '절대'를 넘어설 신선한 징후가 다양하게 소설문학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조진태 오월문예연구소 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오월문학'이 단순한 역사적 기록에 머물지 않고, 시대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이날 참여자들은 5·18을 다룬 작품들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식과 장르를 통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도록 오월문예연구소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월문학"이 앞으로 한국문학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의미를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찬 기자

ACC, 예술극장 무대 설 예술인 8명 선발

"우수 출연진 통해 정체성 강화" 내달 ACC 누리집서 2차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올해 새롭게 운영하는 '2025 ACC 예술극장 시즌 예술인(1차)' 8명을 선발했다.

23일 ACC에 따르면 'ACC 예술극장 시즌 예술인'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술인들에게는 연기 활동을 펼칠 무대와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 출연진 확보를 통해 창·제작 극장으로서의 정체성

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ACC는 올해 예술극장과 함께 할 시즌 예술인을 1차와 2차로 나눠 총 15명 선발한다. 앞서 지난 1월13일~2월3일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는 총 79명의 예술인이 지원해 1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선발된 이들은 △레퍼토리 공연 분야 4명 △어린이 공연 분야 3명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분야 1명 등이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8명 중 4명이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으로, 지역 예술가와 상생하는 ACC 예술극

장의 목표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 예술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교육 배경, 연기 색깔과 장기를 가진 배우들로 ACC 창·제작 공연 무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분해 관객과 만날 계획이다. 또한 1년여간 ACC와 함께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배우이자 창작자로서 활약하는 '작은 공연 프로젝트' 무대를 오는 12월 선보일 방침이다.

한편 'ACC 예술극장 시즌 예술인'은 다음달 초 2차 모집을 진행한다. 2차 모집을 통해 7명의 예술인을 추가 선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전남도립국악단, 삼일절 특집공연 '모란이 피기까지는' 개최

내달 1일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 강진 4·4독립만세운동 다룬 창극 다채로운 가무악희 프로그램 선보

삼일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국악 공연이 찾아온다.

전남도립국악단은 삼일절 106주년 특집공연 '모란이 피기까지는(사진)'을 다음달 1일 무안군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 무대에 올린다고 23일 밝혔다.

창극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김영랑 시인이 쓴 동명의 시를 모티브로 강진 4·4독립만세운동을 극화한 작품이다.

옥중에서 조국 광복의 염원이 담긴 민속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탄생시킨 영광과 '모란'을 암호명으로 1919년 4월4일 강진읍 장날, 꽃거리패로 위장한 독립운동가들의 주도로 분연히 일어서는 강진 군민들의 활약을 그린다.

또 같은 날 무대에서 '광야의 숨결', '아름다운 나라' 등 국악 관현악 작품을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정재일 작곡의 '대한이 살았다'는 대한 독립이란 염원 하나로 차갑고 쓸쓸한 여옥사 8호실에 수감된 일곱명의 여성 독립투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렀던 노랫말을 바탕으로 작곡된 곡이다.

이를 목격한 국악 관현악 선율 위에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단원들이 노래하며 절절한 하모니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무용 퍼포먼스 '기억의 자살 희망의 부활'과 타악 앙상블 '도당' 등 삼일절을 기리기 위해 특별 편성한 가무악희 프로그램들이 무대를 다채롭게 채운다.

한편 삼일절 특집공연에 앞서 전남도립국악단은 오는 29일에는 토요특별공연 신춘음악회 '희망해, 봄'을 개최할 예정이며, '강 건너 봄이 오듯', '희망의 나라로' 등 국악 관현악과 다채로운 협연 무대들도 마련된다. 박찬 기자